창간호 서수면

서수면마을신문

Seosu-myeon Village Newspaper

• **서수면마을신문**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항쟁로 198 • **발행처** :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 **신고번호** : 군산시 사00007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합타운 청사 (내년 3월말 완공)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인 복합타운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중심지인 읍 · 면 소재지에 교육 · 복지 · 문화 · 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배후 마을의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중심지 및 배후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2015년 당시 김영일(군산시의장)의원이 이정란(현 농중활사무국장)에게 추진위를 결성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응모해 볼 것을 권유한 것이 시발점이되어 본 사업이 추진 되었다고 한다.

2016년 3월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열)가 결성되었고 당시 서수면(면장 이삼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2017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최종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수면 복합타운 신축 조감도 .스페이스모(제공)

예산 지원은 총 58억(국비40.지방비18)원이 지원되였으며 처음에는 서수면 복지타운 형태의 독립청사로 추진되었으나 건축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서수면 청사가 낡아 신청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군산시와 협의 군산시가 면청사 신축비용으로17,5억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에서 최종 결정하여 면청사 부지에 2021년 3월 행정복합타운으로 착공하게 되었다.

건설책임자인 농어촌공사 박기덕 과장의 의하면 코로나 사태이후 건설 자재값 폭등으로 건축면적이 축소되는등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년3월완공목표로 최선을다하고 있으며 현재 60%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건물건설현장 전면 사진1

2018년 부터 농중활사업 위원회는 추진위원에서 운영위원체제로 전환 본격적으로 준공을 대비한 운영관리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수면이 군산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연계되어 있다. 서수평야를 기반으로 쌀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서수면은 면 소재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타운이 완성되면 소재지 기능을 조금이나마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서수면은 보다 나은 주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수면 복합건물건설현장 후면 사진2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운영위원회(위원장 최연호)사업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서수답 아트' '아트 추억길', '낭만커뮤니티 조성, '토요시장' 그리고 '마을기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서수면이 활기찬 문화와 삶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활동연혁

2016. 0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
2016. 05 선진지견학
2016, 07 주민특강. 간담회. 전문가 초청교육.
2017. 01 공모신청
2017. 03 전북도 심사
2017, 05 농식품부 심사
2017. 09 농중활사업 최종선정
2018. 04 운영위원회 발대식
2018. 04 1차, 2차 현장포럼
2018, 05 3차 현장포럼
2018. 06 1차, 2차 소 위원회
2018. 10 행정협의
2019. 01 행정협의
2019. 02 실과협의 전라북도협의
2019. 04 이장단 설명회 주민공청회
2019. 12 지역역량강화 수행사 선정
2020. 04~12 동아리(탁구, 서예, 판소리) 운영
2021. 02~03 바리스타 교육(자격증취득)
2021. 09 마스크제작 및 배포
2021. 10 서수면 통합브랜드 개발
2021. 11 선진지견학, 식품개발, 품평회
2022. 04 서수면주민공동체 교류행사. 선진지견학등
2022. 10 서수면마을신문제작

옥구소작쟁의사건 공판 엄중한 경계리에 수개정

칠할이되는 고율의 소작료 불납으로 발단하여 주재소까지 습격하게된 사건 쟁의관계론 초유대사건

동아일보 본사특파원 김두백 (기자)



(동아일보 1928년 2월 2일자)

(사건경계)

전북일대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엽사농장의 도조가 칠할이상에 달함으로 그 소작인이 도저히 살아나갈수가 없다하여 옥구농민조합 서수지부 간부들이 농장측과 여러 가지로 교섭을 하였으나 농장측에서는 완강히 거절하는 것을 보고 필경 소작인들은 결속한후 도조 불납통지를 농장측에 발송한 것이 단서로 작년십일월 이십오일 동조합간부 장공욱이란 사람이 임피역전 주재소에 검속이 된 것을 소작인 수백명이 주재소로 달려가서 빼내가고 돌아가는 동시에 서수 주재소에는 박상호라는 동조합간부가 검속되였다하여 그곳을 습격한 옥구소작쟁의사건으로 인하여 소작인 팔십여명이 군산서에 접혔다가 오십일명이 검사국까지 넘어가게되고 그중 장태성 박상호 김행규 삼십사명이 소요급 구금자탈취 죄명하에 구속되어 공판기일이 여러번 연기되어오더니 작일오전 10시경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제1호법정에서 그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다는데 피고가 34명이나되는 사건은 군산지청이 생긴후 이번이 처음이라 하며 소작쟁의사건으로 삽십여명이 법정에 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조조(이른아침)부터 법정은 방청인 쇄도로 대혼잡 군산경찰은 각요처를 경계 혹한에 떠는 가족참상

지금까지 있던 소작쟁의로는 가장 큰 사건일뿐아니라 피고가 삼십사명에 달하는 다수인만큼 피고들의 가족친지들은 물론 일반사회에서 까지 그 공판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타임으로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좁은 법원으로 다수 방청인들이 쇄도하여 일대 혼잡을 이루었는데 양쪽 주재소 습격을 당하여 황망한 경험을 가진 군산경찰서에서는 정사복 순사를 다수 출동케하여 법원내외는 물론 정거장 기타요처마다 엄중한 경계를 하였는데 피고들이 원래 소작인으로 차한 살림을 한사람의 힘으로 간신히 지탱하여나는 터이라 어린 것들을 업고안고 혹은 남편 혹은 아들들 얼굴이나마 한번 보려고 법원으로 모여드는 그들의 가족들의 얼굴에는 주린빛이 떠오랐으며 쌀쌀한 바닷바람에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떨고 서있는 몰골은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암연한 눈물을 자아내게했다.

이리등 각지에서 수백명이 도착 이른 아침부터 전북 이리 전주 기타 지방에서는 공판을 방청하기위해 피고의 동지 가족과수백명이 군산에 도착하여 법원부근에는 인산인해를 이룬바 이사건이 개정된 제1호 법정은 원래 협착하여 대만원으로 입장시키는데 70명이상은 수용할 수가 없는 터라 피고인 34명을 입장시킨외 방청자는 겨우 겨우 30명을 수용했으므로 1호법정부근은 입장치 못한 수백명 군중으로 대혼잡을 이루었을 뿐만아니라 가끔 법정문을 밀고 들어오려함으로 다수경관과 십수명의 간수는 장외정리에 땀을 빼는 중이었다.

▶출정한 피고

1.金己述(김기술.38)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2.吳堯燮(오요섭.20) 상 동
3.金澤顯(김택현.34) 상 동
4.李容先(이용선.19) 상 동
5.李鎭燮(이진섭.24) 상 동
6.吳承喆(오승철.25) 상 동
7.徐加馬(서가마.34) 상 동
8.韓箕錫(한기석.42) 상 동
9.李英出(이영출.25) 상 동
10.李元燮(이원섭.31) 상 동
11.崔銀化(최은화.31) 상 동
12.李孝男(이효남.22) 상 동
13.尹京文(윤경문.) 상 동
14.李鎭哲(이진철.37) 상 동
15.李聖淳(이성순.38) 상 동
16.徐萬石(서만석.21) 상 동
17.李成春(이성춘.33) 상 동
18.蔡判鎭(채판진.) 상 동
19.吳南龍(오남룡.27) 상 동
20.李光淳(이광순.29) 상 동
21.崔鳳燁(최봉엽.34) 상 동
22.李正春(이정춘.39) 서수면 용전리
23.卜萬吉(복만길.31) 서수면 서수리
24.申文官(신문관.41) 서수면 서수리
25.李保東(이보동.30) 서수면 서수리
26.張台成(장태성.19) 미면 반룡리
27.鄭永云(정영운.30) 서수면 서수리
28.李容德(이용덕.28) 서수면 서수리
29.金否奎(김부규.24) 미면 반룡리
30.金在豊(김재풍.24) 서수면 서수리
31.李休春(이휴춘.) 서수면 서수리
32.金俊喆(김준철.27) 미면 반룡리

용수(두건) 벗기자 정내를 고면(법정을 처다봄) 아직무사 하였구나. 찾다가 못찾아 이상하게 된 얼굴 법정찰나의 극적광경

정각 10시가 되어 오키 재판장을 선두로 키타무라 검사와 서기가 차례로 입장하여 자리에 앉고 멀리 경성으로부터 이 사건을 무료변호차 출장한 김병로씨외 여러 변호사들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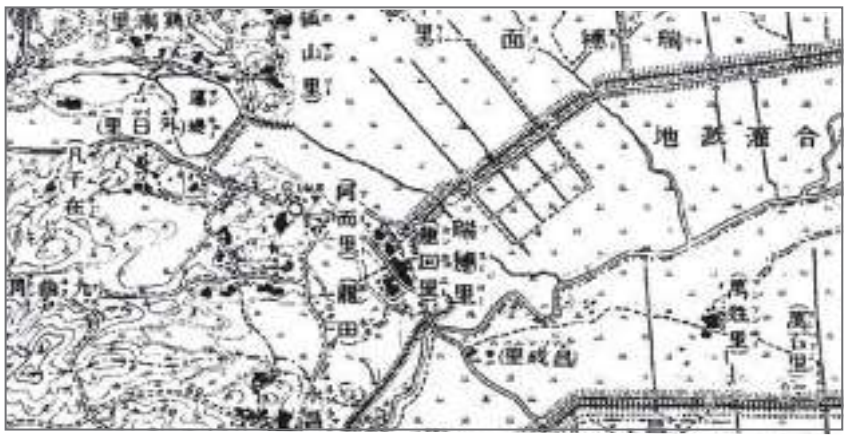
이때 10여명의 간수가 나서서 피고 삼십사인의 용수를 벗기고 수갑을 풀음에 오랫동안 철장에서 갖치어 살아나길이 망연한 가족들의 신상을 걱정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고개를 돌리어 방청석을 돌아보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어 이직은 무사하얐고나 하는 듯한 아타까운 인심의 빗을 보이며 한 숨을 내어 쉬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찾는이를 발견치 못햇다는 듯 얼굴이 상기되어 애쓰는 사람도 있어서 일종 형용할수 없는 극적광경을 일으켰다. (다음호에 계속)

[기사의 원본에 충실하기 위해 의역은 최소화 하였음]

서수면의 유래와 주요지명

전라북도 군산시 북동부 북쪽은 취성산(鷲城山) 등 산지를 경계로 나포면(羅浦面)에, 서쪽과 남쪽은 남산(南山) 등을 경계로 임피면(臨陂面)에, 동쪽은 만경강(萬頃江)의 지류인 탑천(塔川)을 경계로 익산시 함라면(咸羅面) · 황등면(黃登面)과 인접한다.

서북부는 편암(片岩) · 편마암(片麻岩) 등의 기반암으로 된 해발고도 200m 정도의 산지이며, 남동부에는 탑천의 연변에 넓은 충적평야가 있어 호남평야에 연결된다. 쌀 · 보리 등의 주곡농업이 이루어지며 축산이 부업으로 행하여진다. 대야(大野)~강경(江景)과 황등~나포 간 지방도가 지난다.



瑞穗(서수)면의 명칭과 유래

가와사키료타로(川崎勝太郎)는 일본 니카타 출신으로 1904년 군산으로 들어왔다. 전북지역 다른 일인 농장주에 비해 늦은 가와사키는 서수지역에 눈독을 드리고 이엽사(二葉社)농장(현 임피중학교)을 세우고 서수지역에 180,000평의 땅을 소유 하게된다 그는 일본 고향에서 농부 10여명을 불러드려 한국인 소작인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또한 1909년 봄에는 지금의 하용전 마을에 서수신사(瑞穗神社)를 세워 매일 아침 참배시켰다는 것을 보아 가와사키 농장주는 극성 일본 국수주의자였던 것 같다.

1914년 4월 옥구 · 임피 양군이 통합되고 21개 면에서 10개 면으로 통폐합 할 때 면명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당시 동일면 동이면을 합하고 군의 하부행정단위로 면을 두고 면장을 임명하고 면명 리명을 정할 때 가와사키의 제안으로 면명을 서수(瑞穗)로 정하였다고 본다.

(출처: 우리고장의 항일운동사. 김양규)

일본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고서기에 서수국(瑞穗國)으로 표기되는 부분이 나온다.
일본인들에게 서수라는 지명은 일본국이라는 국명과 비견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당한 애착과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제 고구려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우리지역 변천사(군옥지방)

시산군(백제시대) – **임피군**(통일신라) – **임피현**(고려) – **임피현**(조선) – **임피군**(조선후기) – **옥구군**(일제강점기) – **옥구군**(대한민국) – **군산시**(1995년)

▸서수리

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평지에 자리한 농촌마을로, 마을 동남쪽으로 하천이 흐른다. 자연마을로는 서수, 호산, 가자동, 서낭댕이, 용성마을 등이 있다. 서수마을은 본 리가 시작된 마을이다. 호산마을은 지형이 여우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호산 서북쪽에 자리한 가자동마을은 지형이 가재 형국이라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서낭댕이마을은 서낭당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조그마한 언덕이 있으므로 아이마을이라고도 한다. 용성마을은 지형이 용의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마룡리

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평지에 자리한 농촌마을로, 마을 동남쪽으로 하천이 흐른다. 자연마을로는 마룡, 장곤, 상장곤, 하장곤, 왈운정, 점촌마을 등이 있다. 마룡마을은 본 리가 시작된 마을이다. 장곤마을은 장기(쟁기)모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상장곤마을과 하장곤마을은 각각 장곤의 위쪽, 아래쪽이 된다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왈운정마을은 상장곤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때 서울서 내려오는 고관을 마중하는 정자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점촌마을은 옹기점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라 한다.

▸화등리

구릉성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경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하천이 흘러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자연마을로는 화등, 달가매, 구산, 돌꼬지, 새터마을 등이 있다. 화등마을은 본 리가 시작된 마을이다. 달가매마을은 화등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반달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산마을은 달가매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거북묘가 있었다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돌꼬지마을은 바위가 곶이를 이루고 있다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며, 새터마을은 돌꼬지 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축동리

구릉성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경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하천이 흘러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자연마을로는 축동, 점촌, 무장, 밧무장, 안무장, 복우마을 등이 있다. 축동마을은 본 리가 시작된 마을이다. 점촌마을은 전에 이곳에 옹기점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장마을은 축동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이고, 밧무장마을과 안무장마을은 각각 무장의 바깥쪽, 안쪽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복우(伏牛)마을은 소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라 한다.

▸금암리

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평지에 자리한 농촌마을로, 마을 앞으로 하천이 흐른다. 큰 바위가 있으므로 금바우 또는 검바우라 불리다가 금암리가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금암, 하금암, 교동, 마포마을 등이 있다. 금암마을은 본 리가 시작된 마을로, 지명유래 또한 금암리의 그것과 같다. 하금암마을은 금암 아래쪽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교동마을은 하금암 동쪽에 있는 마을로, 향교 분교가 있었다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마포마을은 익산군 함라면에서 흘러오는 이곳 탑천강 지류에 말나루라는 포구가 있었다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라 한다.

▸관원리

동쪽으로 서수면 축동리, 서쪽으로 서수면 마룡리, 남쪽으로 서수면 서수리, 북쪽으로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와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에 접하고 있다. 산간 마을, 원관원 마을, 방령 마을, 세집매, 신관원, 연봉리, 저너머 등의 자연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망해산과 취성산의 산줄기를 중심으로 취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교통 시설은 지방도 711호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경유한다.

고려 시대 임피 고을의 관(官)에서 백성들을 임의로 동원하여 일을 시켰다는 데서 “관원(官院)” 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축 사

서수면마을신문 발행을 축하하며...



호원대학교 총장 **강 희 성**

서수면마을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서수면마을신문이 지역 주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 크게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고장의 소식과 주요 현안,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께 알리는 역할은 중앙언론이 할 수 없고 지역 언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발전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 신문과 함께합니다.

우리 서수마을 신문이 민주주의 주인인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다양한 목소리와 정보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전달하면서 우리 지역의 소통과 화합,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 지킴이 역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에 밀착된 소식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도 많이 찾아내어 전파하는 따뜻한 신문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출발하는 서수마을신문사가 우리 지역주민의 깊은 사랑과 신뢰 속에 알차고 건강한 지역신문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수면 원로회장
최 영 안 (월암마을)

싱그러운 가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알권리를 통해 밝은세상의 등불이 되어주는 서수면 마을신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고장 서수는 예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유례가 깊은 곳으로 정치인 경제인 학자 종교인등 수 많은 인재들이 배출 되었던 지역으로 온화하고 우덕하신 성품을 지닌 어르신들과 인재들이 많아 명실공히 신비의 고장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듯 조용한 지역인 서수는 옛 옥구군과 군산시의 가장 자리인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행정지원이 미약하여 소외를 당한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시점에 우리 지역민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지역신문이 발간되게 되어 너무나도 흡족한 마음입니다.

서수면민 여러분!
좀더 나은 삶의 터전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자문과 고견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선비의 고향인 우리 서수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우리 주민들은 합심단결하시어 어느지역보다 우수한 지역민이란 자부심을 이번 서수마을신문 발간에 즈음하여 소기의 성과를 나타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서수마을신문 관계자분들께서는 주민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서수마을신문이 날로 발전하여 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기둥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마을신문이 되길...



서수면 원로회 부회장
월석 **백 용 기** (신간마을)

서수면 마을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좋은 마을신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날에 꽃길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37개 마을로 구성된 서수면 가운데 8개 마을이 용 자가 들어가는 마을로 용이 내려와 밭에 터를 잡고 산다는 용전마을이 있는가 하면 용의 머리인 용귀리 마을이 마룡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둘러싼 축성산은 어미의 품처럼 따뜻하며 대지위에 봉곳이 솟은 삼각형의 산세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출정의 고양 애국의 고장으로 3.1운동의 발원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수는 용의 용트림과 축성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용들 국회의원 및 야당당수를 탄생시킨 지역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우리가 세월의 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퇴보의 길로 접어든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촌 중심지 사업 추진위를 결성 서수면을 중심으로 편의 시설과 쾌적한 주민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로 비상하고 있는 지금 조그마한 힘을 보태기 위해 서수 원로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서수 발전을 위한 토대와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서수를 널리 홍보하고 대표적인 고향이야기, 먹거리, 볼거리 등을 발굴해 나갈것입니다.

이번 서수면 마을신문 발간을 계기로 두가지를 실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상주사를 연계한 축성산을 편백나무로 조성 산림메카

둘째, 마룡리 용귀리 방죽의 연꽃을 중심으로한 공원을 만들어 개발하고 들어 갔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신문을 만들어 면민에게 공급하는데 재정문제로 활동이 축소될까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않습니다.

우리가 신문제작에 있어 활동의 보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하면서 서수신문의 발간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서수면이 더욱 발전하고 삶의 길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서수면 마을신문의 앞날에 밝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농중활운영위원회 활동



▲서수면마을신문 편집위원들



▲쌀막걸리 시식회



▲쌀빵 만들기



▲쌀식품 품평회



▲농중활회의



▲바리스타교육



▲선진지 견학



▲탁구동아리



▲선진지 견학(교육)



▲서예동아리



▲판소리동아리



▲군산시 농촌협약사업교육

〈6면에 이어서〉

선생님은 ‘그런데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다. 쌀이 있으며 좀 주면 좋겠다.’ 고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집에 와서 병고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간호하느라고 선생님 의 부탁을 깜빡 잊고 말았다. 1개월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선생님도 돌아가셨다. 선생님께 죄를 진 것이 항시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1990년대 초 광복회 전북도지부에서 선생님 동상을 참배 한다고 하여 쌀 3포대를 기단 아래 놓고 지난 이야기를 고백하니 마음이 후련하였다.” 선생은 조국 광복을 위해 환국했건만 저마다 권력쟁취에 혼란스럽던 조국의 모습을 개탄하면서 그들과 부화뇌동하지 않았다.

3.1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 갑성의 관직 제안도 거절했다. 다만 전라북도 지사의 권유로 폐교 직전의 시골 임피중학교 교장에 1953년 취임하여 1962년 2월 28일 임피중학교를 정년 퇴직했다.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독립장를 수여한 후 1963년 3월 21일 별세하자 전라북도 사회장(위원장 김인 전라북도 지사)으로 5일장을 거행했으며 고향 선영에 모셨다.

10여 년이 지난 1974년 10월 17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제151호에 안장을 했다.

선생이 가신지 반백 년이 넘었지만 2005년 10월 1일 월명공원 춘고원에 세워진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 동상’은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필자는 선생의 장손 고 이일곤 선생이 한국감정원 대전 부원장으로 재직 시 그의 조부가 1920년 군자금으로 헌납했던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언급하고자 한다.

1995년 6월 시점 현재로 조사되었던 헌납 토지 총면적은 813,364㎡(246,474평; 대지 4,646평, 답223,161평, 전18,667평)이었다. 대략적으로 토지가격을 3.3㎡(평) 당약 10만원씩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25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까지 유족들에게 공채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 독립운동가는 가난과 병마로 시달리며 한촌(寒村) ‘서수 집’에서 쓸쓸한 임종을 맞았다.

임피중학교 제자 송봉규 고문(춘고 이인식 선생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선생이 병마에 시달이며 돈이 없어 군산의 ‘진내과’와 익산의 ‘김외과’에서 외상으로 치료를 하셨다. 장례식 후 며느리가 치료비 외상값을 갚기 위해 두 원장을 찾아 갔으나 모두 극구사양을 했다.” 고 했다.

제안컨대 선생의 생가를 지나는 도로명을 ‘춘고 이인식길’로 변경하여 선양하고, ‘서수 집’을 매입하여 노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담는 ‘작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어떨까?

(군장대학교 명예교수 최 규 홍)

까 마 중



한 선 자(산간마을)

별 사탕 먹자

바람 없는 가을날
토방에 앉아
하나 가득 별 사탕이 쥐어있습니다.

모아든 병아리들
심술궂은 오빠는
별 사탕을 터트려 동생들 얼굴에
별 그림을 그립니다.

어머니는 두레박속에 가득 든
이야기 꽃을 피우고

조여드는 이야기에 턱 밑으로
모여드는 작은 숨소리들

외진 곳 귀퉁이에 까마중
어머니는 여기 있습니다.

서수도서관에서는

많은 책들이
서수면 주민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립투사 춘고(春皐) 이인식 선생

1) 독립군자금 이야기



춘고 이인식(1901.10.22–1963. 03.21) 선생은 400여 년동안 조상대대(12대)로 이어온 가문의 만석부호 이태하의 3남 2녀 막내로 임피면 읍내리 453번지에서 태어났다.

임피초등학교를 졸업 후 16세 때 조득(17세) 여사와 결혼을 하였고,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보성고보 3학년에 재학 중 3 · 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주최 측과 미국 영사관과의 연락책임을 맡는 한편, 전북학생 대표로 활약하다가 3월 5일 종로구 송현동 62번지 자택에서 선생 등 43명이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종로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군자금 모집의 비밀사명을 띤 이원형(볼기를 80대를 맞고 석방)을 알게 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군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고향 임피로 내려와 상속받은 땅을 팔거나 저당을 잡혀 군자금 8,000원을 마련한 후 다시 상경해 이원형을 만났다.

이원형은 선생에게 "신의주로 가서 엿판에 「올림픽 마크」를 한 엿장수를 만나라" 는 것이었다. 선생은 일경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친척 한 사람과 함께 서울에서 개성까지 기차를 타고, 개성에서 다시 걸어서 한 달만에 신의주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가 1920년 8월경 이었다.

도착 후 만나는 엿장수 마다 엿을 사먹으며 꼬박 사흘을 헤매다 엿판에 「올림픽 마크」를 한 엿장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 엿장수의 안내를 받아 밀선을 타고 만주 봉황성으로 가서 1919년 4월 발족한 상해임시가정부의 요인들에게 8,000원을 헌납한 후 무기명 1천원 짜리 공채 5매와 기명으로 된 공채 1천원 짜리 3매를 수령하게 되었다.

당시 선생이 받은 공채의 발행인은 상해 '대한민국임시가정부(臨時假政府) 재무국 총재 이승만, 재무총장 허영완' 이었다.

해방이 되었으나 선생은 만주에서 곧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1946년 9월에서야 병석에서 일어나 장남 병주 등에 업혀 38선을 넘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유는 해방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이 환국함에 따라 남아있던 동포들의 자녀들을 거두어 가르치기 위해 목단강고려중학교 설립초기 교장으로 부임했었고,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1953년 폐교 직전의 임피중학교 2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인재양성에 전념하였다.그러나 당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촌의 소년 소녀들이 농사일을 도와야 했으므로 중학교 진학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전거로 가가호호 찾아 다니며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한다' 고 부모를 설득했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박봉을 털어 학비에 보탰다. 특히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학대(勤學隊)' 를 조직했고, 약초를 재배하고 산약초를 캐어 팔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선생의 독립군자금 모집 관련 사료는 완주문화원 간행「완주향토사료지」 '독립운동가 김갑수의 인물사화' 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임시정부에 헌납하고 받은 천원권 공채 (1,000원권 8매)

'김갑수는 1918년 중국의 남양대학을 졸업 후 1919년 4월 상해에서 의정원 의원으로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그 때 김갑수는 우리 임시정부 발행국채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 애국운동의 군자금을 마련하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임피갑부 이인식은 김갑수가 가지고 온 국채 1만원어치를 사서 우리 임정에 큰 보탬을 주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선생이 임피중학교 정년퇴직 20일 전 1962년 2월 8일에 동아일보 남시욱 특파원과의 대담에서 '5.16 혁명정부에서 공채를 상환해 주려고 법제처에서 법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돈이 나오면 그것도 학교에 기부하겠다' 고 말한 것을 보면 혁명정부의 재건국민회의에 상당한 기대를 한 것 같았다.

(2) 춘고 이인식 교장의 말년

젊은 시절 구국의 일념으로 자신에게 상속된 1만석을 생산 할 수 있었던 토지 전부를 독립군자금에 헌납했던 선생의 말년은 매우 빈한했다.

선생은 임피중학교 재직 중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박봉을 털어야 했으므로 1962년 2월 28일 퇴직 후에 거처할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퇴직 다음 해 1963년 1월 12일 '서수 집' (서수리 774번지, 572㎡)으로 이사했지만 2개월도 못되어 별세하시고 말았다. 선생이 마지막 살았던 '서수 집' 의 구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원래 백형 이완식의 장남 이병관의 소유였다.

그러나 장손 이병관은 한 살 아래 숙부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선생이 별세한지 1년 후 그 집은 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는 폐가로 방치된 상태다.

선생의 임피중학교 제자였던 '옥구농민항일투사추모회' 문병준회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선생이 별세 직전 몹시 빈곤했었다고 아래와 같이 회상을 했다.

"제가 20대에 선생님이 살던 '서수 집' 과 300m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선생님도 병환으로 누워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암 선고를 받고 회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하루는 선생님의 병환이 궁금해서 찾아가자 선생님께서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시며 마늘을 구워서 드리라고 하셨다.



춘고 이인식 선생 동상
(월명공원)

로컬푸드&하나로마트 동군산농협. 디오션점 오픈



하나로마트&로컬푸드 디오션=사진:농군산농협제공

동군산농협(조합장 박영근) 하나로마트&로컬푸드 디오션점'이 지난 8월 24일 개점했다.

동군산농협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 유통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군산 구암동(130-1)에 위치한 디오션점은 부지면적 6271㎡에 건축면적 1282㎡의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은 300여명의 농가가 참여해 350여 품목의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위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디오션시티와 신 역세권과도 가까운 만큼 주민들의 편의도모 는 물론 빠른 소비층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춤으로서 많은 소비자들이 직매장을 찾을 수 있는 '도·농상생장터' 의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동군산농협은 농민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영근 조합장은 "동군산농협 조합원 및 관내 농가에서 타 로컬푸드 직매장에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 노력과 땀의 결실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 며 "지역 농가의 어려운 현실과 바람을 반영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쾌적한 시설에서 우수한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는 모범적인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전북일보기사)

서수쌀 첫 수출 길을 열다

북유럽 코펜하겐(덴마크)으로. 중수비 영농조합법인(주)



서수쌀이 유럽 수출길에 올랐다.

중수비영농조합법인(대표 김중효)은 지난 8월 서수쌀이 코트라 전북지원단의 도움으로 덴마크로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코펜하겐으로 수출된 서수쌀은 1kg×300개씩 소포장 상태로 코펜하겐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중수비 영농조합 대표는 자체적으로 생산 가공 진공포장으로 유통기간을 늘려 국내는 물론 수출까지 이르게 되였고 유기농 친환경 쌀로 승부를 걸은 것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되여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의 고품질 쌀을 해외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중수비영농조합 김정숙 이사는, 이번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농산물 수출시 물류비 지원 등 관계기관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 군산서수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임피중학교



서수면에 있는 공립중학교

본교는 국회의원 조영완 · 심복동 · 양일동 등과 임피면 · 서수면 주민들이 전답(田畓) 등으로 출자해 1948년 11월 11일 일본인 가와사키가 경영하던 이엽사 농장 자리에 중학원이란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했다. 하지만 시골 사립학교의 경영이 한계에 달하자 주민들의 탄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52년 1월 18일 임피중학교라는 교명으로 공립중학교 인가를 받았으며, 1952년 3월 11일 11일 초대 윤재중 교장이 부임했다.

6.25전쟁으로 학생이 없는 임피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던 였던 1953년 11월 15일 춘고(春皐) 이인식(李仁植) 선생이 본교 제2대 교장으로 부임해 사재를 기증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학생 모집에 나섰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는 일념으로 배움의 기회를 넓히면서 훌륭한 제자 배출에 헌신했다.

1992년 3 · 1절 행사를 기해 춘고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으며, 됨995년 2월 13일에 임피 중학교 동문회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모교 재학생들에게 매년 5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2002년 6월 5일 일본 아키타현 오가다 중학교와 국제교류자매결연을 맺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피중학교 [Impi Middle School, 臨陂中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간 혁신'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답게 기획부터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서수초

군산 서수초등학교(교장 이일령)는 1949년에 개교하여 전체학생수 17명의 소규모학교이지만 지역중심학교로서 2023년에 교육부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게 된지금은 설계를 앞



두고 사용자 참여 사전기획단계로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변모하기 위해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박차를 가하기에 한창이다. 본격적인 시작은 4월부터 진행하였고 경남 통영의 벽방초 이종국 교장과 남원 덕과초를 기획 · 설계한 박기우 교수(원광대 건축학과)를 초빙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혁신 노하우와 본교만의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6월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 남원의 덕과초, 전주의 자연초, 세종의 솔빛초를 탐방했다.

7월 방학을 앞두고 본교 구성원의 마지막 참여가 된 세종및 청주지역 탐방은 공간에 대한 영역을 좀 더 확장하여 접근하였고 생태 지향적인 그린스쿨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아름다운 정원으로 잘 꾸며진 세종 베어트리 파크에서 자연의 쉼과 미적체험을 만끽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도 필요해서 세종 챔피온 실내놀이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공간을 탐색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방문한 솔빛초에서는 솔빛초 교감선생님의 실내 공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받으며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겪었던 어려움과 주의할 점에 대한 추가설명까지 듣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의미있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착공되기를 바라며 본교 이일령 교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단순히 노후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간주권을 가진 교사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공간을 혁신하는 것" 이라며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이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 전통체험학습 마룡초등학교



사진:전주한옥마을체험(마룡초등학교제공)

1934년 축성산 아래 지어진 우리 마룡초등학교는 '本이 바로 서는 Well Being 마룡 교육' 라는 교육비전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키워나가며, 배움이 즐겁고, 교사와 정서적 소통을 나누며 사회를 배워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산과 들을 매일 바라보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아이들이 힘차게 뛰어놀 공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도심지에서 멀어 다양한 경험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매달 새로운 곳을 방문하여 전주 한옥마을, 부안 채석강, 정읍 천사히어로즈, 완주 꿈꾸는 아이 등등 다양한 진로체험 및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교 100년을 목전에 두고 이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마룡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가꾸어 꽃을 피우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향세 도입에 따른기대

10만원 전액환급…연500만 한도 위법시 최대 8개월간 모금 제한 30% 한도 지역농산물 등 답례품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 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 시행령이 8월 15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 본격적 제도 시행 절차에 착수했다.

●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 기부

고향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됐다.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고향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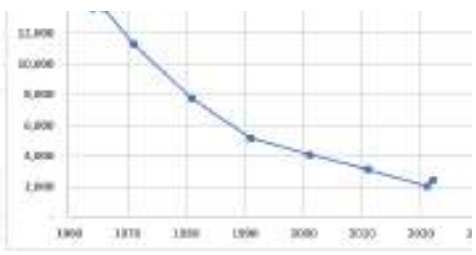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환급되고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16.5%(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가 세액공제된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대상에게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편집국)

"서수면 인구소멸 어떻게?

군산시가 제조업의 급격한 쇠퇴로 처음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 되였다고 한다.

2022년 8월 기준(행안부 자료) 군산시 읍 면 동 인구수를 보면 서수면은 나포면, 해신동 다음으로 적은 인구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서수면 인구소멸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것이다.



서수면 인구수(표2) 추이를 살펴보면 1966년 13,649명을 최정점으로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64과 1966년 서수면 인구가 13,649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현 재 전라북도 장수군의 전체 인구가 21,531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서 수면의 위상을 해 가늠해 볼 수 있다.

2022년 400명의 증가로 반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불과 몇년 후면 2000명 선도 무너질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서수면 인구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 (다음호에 계속)

연도	계
1964	13,649
1966	13,649
1971	11,317
1981	7,753
1991	5,180
2001	4,074
2011	3,122
2021	2,053
2022	2,455

표2= 서수면 인구통계
(서수면 총무계 제공)



서수지명 변경?

6년전 서수면 지명변경 주민투표가 부결된적이 있다.
서수라는 지명이 일본인 농장주가 개입하여 만든 지명으로 수탈의 역사를 담고 있어 정체성 및 면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갈등과 상처만 남은 서수면 명칭변경 운동은 그 취지나 논리가 합리적이였다 하더라고 현실과 미래예측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급한 면도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된다.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일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면명 리명을 변경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군산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면명이 지금의 면명으로 이어진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피현이 임피면으로 옥구현 옥구군으로 사용된 것이 그래도 살아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지명 변경 운동은 우리 서수면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품의 역사적 유산으로 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소멸 차원에서 읍면동 통합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조선시대 임피현 동이면 이였던 서수면이 임피면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면 서수면 지면변경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 될것이다.

조선시대에 임피현은 현감이 아닌 현령이 부임하는 유일 한 4곳 중 하나였을 만큼 중요한 지역이였다. (편집국)

바람과함께 사라지다 나무공룡



우리와 함께했던 300백살의 노공룡은 바람과함께 사라 져버렸다.
우리가 잘 보호만 했더라도 (보천사 옆길)

아시나요! 용바우의 전설을



사랑하던 처자를 애타게 기다리다 용이 되였다는 전설이 (서수면 남산)

모링가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하용전마을)



모링가는 300여가지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여 생명의 나무, 기적의 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푸드로 선정된 바 있는 모링가는 인도 북부 지역이 원산지 입니다.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의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 010-9286-8239)

수바우



서수리 하용전마을 앞에 하용전 선돌이 서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바위를 '수바우' 라 불렸습니다. 원통형 자연석 선돌은 높이 164㎝ 둘레 248㎝이며 '수바우' 에서 300m 내 아이마을에 '암바우' 가 위치에 있고 높이 1m 정도의 선돌입니다.

선돌이란 고인돌. 열석 등과 같이 거석문화이며 민간신앙의 대상인 숭배기능과 농경에 대한 풍요등의 믿음의 대상물이나 특수목적을 갖이는 돌기둥 유적입니다. 이와 함께 과시물, 기념비, 경계석,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하용전마을 = 진희승 위원)



서수 임피(옥구)농민항쟁 기념탑



임피중학교 입구에 자리한 서수(옥구)농민항쟁기념비 1994년에 건립되어 매년 시민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옥구농민항쟁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서수농민항쟁" 아니면 "임피(서수)농민항쟁"으로 명명 하는것이 보다 실질적 "임피이고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광 고

서수면마을신문

안녕하세요 옛 사진을 찾습니다!

서수면이 담겨 있는 옛 사진들








• 발행처: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

• 편집국장: **최 연 호**
• 편집위원: **이 정 란**
• 편집위원: **진 희 승**
• 편집위원: **김 석 호**
• 편집위원: **이 하 범**

• 사업국장: **이 종 화**
• 사업위원: **백 혁 기**
• 사업위원: **이 옥 수**
• 사업위원: **채 정 병**
• 디 자 인: **김 영 수**

• 서수면마을신문 연락처/편집국: 010-4643-1149
• 주 소: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 사업국: 010-3657-9155
• 기사제보: TEL 010-4643-1149 Email: yhchoi25@naver.com
• 후원계좌번호: **우체국 401166-01-002606** • 예금주: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